

# 정책 동향

1호(10/30~11/5) 2017년 11월 6일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 < 주요 동향 >

- ▷ 세종연구소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외교·안보의제 대응논리, 외교안보연구소의 “동맹 사이의 확장 억제 협의를 실효성 있게 만드는 방안”과 “전술핵 재배치 같은 하드웨어보다 공동 협의 조직의 상설화라는 소프트웨어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보고서에 주목함.
- ▷ KDI와 세종연구소의 중국 당대회 평가와 북중관계, 일본중의원 총선거 결과 분석, 입법조사처의 데이트 폭력 쟁점과 대안은 참조할 보고서임.
- ▷ 정부의 사드 해법으로써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방안의 문제점, 우려사항, 짚어야 할 점들을 살펴 봄.

※ 정책네트워크내일의 공식입장이 아닌 회원님을 위한 정보제공 자료이므로 인용·보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기관명	분야	제목	쪽
세종연구소	외교 안보	서울 한·미 정상회담의 외교·안보의제 대응논리	3
외교안보연구소	안보	북한의 ICBM 보유 이후 한국의 대응: 1960년대 유럽 사례의 함의	3
KDI 북한경제리뷰	외교	중국,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북중관계 전망	5
세종연구소	외교	일본중의원 총선거 결과 분석	6
입법조사처	성평등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의 쟁점 및 향후 과제	7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기관명	분야	제목	쪽
외교부	외교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7
대통령	경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 시정연설	8
교육부	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9

##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 ■ 서울 한·미 정상회담의 외교·안보의제 대응논리 (홍현익, 세종연구소, 2017.11.3.)

#### <요약>

- 1) 중국 시진핑 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한 담판을 벌이기 전 일본을 거쳐 서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의 국운을 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어떤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국의 중요한 국가안보 이익을 지켜낼 것인가?
- 2) 첫째, ...북한은 중국·러시아의 접경국이므로 국지전이 자칫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전쟁을 걸어온다면 당연히 맞서 싸워 승리하겠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불사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해야 한다.
- 3) 둘째, 한국이 국제 평화와 미국의 희망 때문에 핵 개발을 자제하고 있으므로...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동적·즉응적으로 핵 보복을 보장하는 한·미 핵안보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현재처럼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강화 정도로는 전략자산 부재 기간이 존재해 결국 허점이 노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는 아니더라도 미 전략자산을 '상시' 순환 배치해야 한다.
- 4) 셋째, 대북 압박 및 제재와 함께 협상도 병행해야 한다...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면, 대북 제재 및 한·미 군사훈련 강화와 함께 북·미 협상도 조속히 병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 5) 넷째,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을 인류 평화의 축전으로 만드는데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조속히 북핵 문제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이 본 궤도에 오른다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결정적인 발판이 마련될 것이고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지도력을 흠모할 것이라고 설득해야 한다.

<원문 읽기> <https://goo.gl/xkVBpS>

#### 시사점

- 1) 사실상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는 북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와 대화의 병행, 그리고 '핵안보조약' 체결 등의 제안 참조.
- 2) 11/3 채널뉴스아시아와 인터뷰에서 문대통령은 "That is why I am pursuing a balanced diplomacy with the US as well as China"라고 사실상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등가관계처럼 표현하고 균형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오해의 소지를 낳을 우려가 있음. [인터뷰] <https://goo.gl/9QR8se>

### ■ 북한의 ICBM 보유 이후 한국의 대응: 1960년대 유럽 사례의 함의 (황일도, 외교안보연구소, 2017.11.3.)

#### <요약>

- 1) 북한의 '전략적 핵무력건설구상'이 종착점을 향해 치달고 있음...ICBM 타격 능력을 기반으로 핵우산 가동을 차단하고자 하는 북한 핵 억제 교리 진화의 목표지점...보여준 바 있음...1957년...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림으로써 ICBM 기술 보유를 실증했던 시점...미 본토가 ICBM의 사정권에 포함되면서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음.
- 2) 프랑스의 선택은...독자 핵무장에 나서는 것이었음. “미국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것인가”라는 드골 대통령의 유명한 질문...프랑스가 채택한 핵전략 '비례억제'는 상대가 어떤 무기로 공격하든 관계없이 자국이 위협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모스크바에 즉시, 한꺼번에 퍼붓겠다는 것이었음...프랑스는 소련 혹은 WTO 진영 전체를 초토화시킬 막강한 핵전력을 구축하는 대신, '미·소 핵 교전의 방아쇠 구실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력을 확보하는 데 그쳤음.
- 3) 서독의 선택은...세계대전 전범국이라는 이유로...독자 핵무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길... '재래전-전술핵-전략핵 사용'의 3단계로 나눠 문턱(threshold)을 설정해놓고, 상대의 반응과 전황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한다'는 골자임...NATO 회원국이 미국의 핵사용 작전계획(OPLAN) 검토와 실행에 참여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선회함...전술핵무기는 미국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활성화되지 않는 체계니만큼 '미국이 반대하고 유럽 국가들은 사용을 원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큰 의미는 없었지만, 거꾸로 '미국은 원하나 유럽은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핵 사용을 저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음.
- 4)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국의 핵 개발 과정에서부터 기술협력을 제공했고, 그 반대급부로 일찍이 자체 핵무장을 마무리했음...자국이 소련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모스크바를 보복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작업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었음. 그에 따라 영국은 소련의 조밀한 방공망을 뚫고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핵 장착 SLBM만을 위주로 핵 억제를 구축하는 극단적인 방식의 최소억제 교리를 채택했음.
- 5) (한국은) ▲독자적 핵무장의 가능성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미동맹의 견고성을 유지하면서도 ▲억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제한적 프랑스 모델을 한반도 상황에 적용할 경우, 한국과 미국이 각각 평양에 대한 응징 억제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북측의 계산을 한층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요약할 수...서독식 모델이 주는 더욱 현실적인 시사점은 동맹 사이의 확장 억제 협의를 실효성 있게 만드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서독식 모델과 확장억제 협의 강화를 주된 방향으로 설정할 경우 상정할 수 있는 현실적 외교 목표는 전술핵 재배치 같은 하드웨어보다 공동 협의 조직의 상설화라는 소프트웨어 강화라고 할 수 있음...영국식 모델의 핵심은...북한이 ▲'개전 초 핵 사용' 같은 극단적 확전에 나서지 않도록 억제하고 ▲최후의 순간에도 미국의 핵우산과 한국의 독자적 응징 능력을 모두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핵 사용을 끝내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그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음.

<원문 읽기> <https://goo.gl/ULZjtA>

## 시사점

- 1) 독자적 핵무장 모델인 프랑스, 미국과 협력 속 핵무장국 영국 모델과 이른바 NATO식 핵 공유 모델인 서독의 모델의 차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음.
- 2) 우리가 벤치마킹할만한 서독식 모델이 주는 “동맹 사이의 확장 억제 협의를 실효성 있게 만드는 방안”과 “전술핵 재배치 같은 하드웨어보다 공동 협의 조직의 상설화라는 소프트웨어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함.

## ■ 중국,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북중관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7.10.31.)

### <요약>

1)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보고의 핵심 내용을...‘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압축할 수 있다...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였다고 주장...신시대란, ①과거 중국혁명과 개혁개방의 역사적 경험을 계승해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시대, ②전면적인 소강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현대화 강국의 길로 진입하는 시대, ③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는 시대, ④전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시대, ⑤세계무대의 중앙에 진입해 인류에 더 많은 공헌을 하는 시대 등을 의미한다.

2) 신시대 중국사회의 주요 모순을 ‘인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와 불균등·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규정하고 있다...소강사회의 전면 건설(2020년) →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2035년) → 전면적인 사회주의현대화 강국 건설(2050년)이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

3) 금번 19대는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시진핑 2기체제의 출범을 공식화했다...마오쩌둥 시기의 당 주석제가 부활되지 않고 당 총서기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 점, 정치국 상무위원의 7인체제가 지속된 점, 68세 퇴직 연령의 관행이 실행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 내에 집단지도체제의 관성이 여전히 유효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4) 19대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16자 지도이념)’이 중국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당장에 명기되었다는 사실을 거론할 수 있다...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 리잔수, 왕후닝, 자오러지 등이 친시진핑계로 분류되고, 정치국원 중 상당수가 시진핑의 측근이거나 직간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인사들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2기체제는 1기체제에 비해 시진핑의 권력이 더욱 공고화·집중화되었음을 의미한다.

5) 대외정책분야에서, 중국은 신시대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를 주창하고 있다.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란, ‘신형국제관계’를 추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으로 집약된다...신형국제관계의 핵심은 상호존중, 공평정의, 상생협력이고, 인류운명공동체는 항구적 평화, 보편적 안전, 공동번영, 포용개방, 청결하고 아름다운 세계 등 5개 세계의 건설을 의미한다...‘중국은 절대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자신의 정당한 권익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와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꿈은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6) 시진핑 집권 1기의 북중관계는 양국이 갈등의 부분적인 완화와 협력 모색이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갈등 심화와 악화로 전개되었다...시진핑 2기가 완성되는 내년 3월 이후 북중관계는 커다란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19대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대국외교의 핵심인 신형국제관계의 추진과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다.

<원문 읽기> <https://goo.gl/aWQASD>

## 시사점

- 1)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회에서 채택된,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전략’, ‘신형국제관계’의 논리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한중관계 협력 가능성을 예측한 보고서로 평가됨.
- 2) 북중관계 또한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적극 협력할 것...다만, 북한의 붕괴를 야기하는 수준의 조치나 대북 군사옵션 사용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강경한 대응으로 통제할 것이다...북한체제의 안정 유지와 같은 안보이익을 더 우선하면서, 남북대화 및 북핵 관련 회담 재개를 통한 대북제재의 완화 등 우호적 대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중국의 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참조할만함.

## 일본중의원 총선거 결과 분석 (이면우, 세종연구소, 2017.11.1.)

### <요약>

- 1) 2017년 10월 22일에 투개표가 진행된 일본의 중의원총선거는...아베 수상과 관련된 ‘모리가게’ 스캔들과 그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거전의 의석수인 284석을 그대로 유지했고 연립정권을 형성하는 공명당과 함께 헌법개정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는 성과.
- 2) 고이케 동경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희망의 당’이 참패했다는 점이다. 7월초의 동경 도의회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여세를 몰아서 이번의 중의원 총선거에서도 바람몰이를 할 것으로 예상했던 ‘희망의 당’이 선거전의 의석수인 57석에서 크게 후퇴한 50석에 그쳤다.
- 3) ‘입헌민주당’의 약진이다. 마에하라 민진당 대표의 ‘희망의 당’ 합류 결정과 그에 대한 고이케 대표의 ‘선별’ 및 ‘배제’ 발언에 반발하여 창당된 입헌민주당은 신생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전의 15석에서 39석이나 늘어난 54석을 차지했다.

<표 1> 2017년 중의원총선거의 결과

	자민	공명	희망	공산	입헌	유신	사민	마음	무소속
소선거구	218	8	18	1	17	3	1	0	23
비례대표	66	21	32	11	37	8	1	0	0
<b>합</b>	<b>284</b>	<b>29</b>	<b>50</b>	<b>12</b>	<b>55</b>	<b>11</b>	<b>2</b>	<b>0</b>	<b>23</b>
의석감소	0	-5	-7	-9	40	-3	0	0	-22

- 4)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공명당이 아니어도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희망의 당이나 유신회의 의석수를 합치면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을 훨씬 넘지만 장기적인 포석에서 조직표를 가진 공명당을 무시할 수 없기에 쉽지 않을 것...국회의원들과는 달리 국민의 여론은 40%대에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두르지 않고 야당들과의 논의를 거친 후 국민여론을 주시할 것.
- 5) 선거결과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아베 내각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큰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일본의 대북정책 역시 아베 내각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원문 읽기> <https://goo.gl/3Qa2AT>

## 시사점

- 1) 중의원 총선거의 쟁점, 자민당 압승의 요인, 희망의당의 참패의 요인을 개괄한 가운데 헌법 개정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과 한일 및 북일관계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 참조.
- 2) 선거공학 관련 자민당은 북한의 위협을 '북풍'으로 기민하게 활용했고, 희망의당 고이케 대표는...민진당 의원들 모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 지향성 등을 고려해 '선별'해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자민당과의 선명한 차별성을 보이는데 실패한 점은 반면교사.

## ■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의 쟁점 및 향후 과제 (조주은, 허민숙, 입법조사처, 2017.11.2.)

### <요약>

- 1) 국제사회는...데이트 폭력 역시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성차별이 이러한 폭력의 원인임을 분명히 하였다...미국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의해서 자행되는 폭력"으로 데이트 폭력을 정의하고 있다. 미 법무부의 여성폭력방지국은 성폭력, 성희롱, 협박, 신체적·성적·정신적·감정적 학대·통제·사회적 고립, 디지털 및 인터넷 관련 범죄 및 스토킹 등을 데이트 폭력의 유형으로 정의
- 2)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전체 살인범죄자 중 피해자와의 관계가 '애인'인 경우는 11.9%로, 살인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애인에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대부분의 스토킹 범죄는 데이트 폭력의 연속선에서 발생...지난 해 발생한 스토킹은 555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다.
- 3) 현행법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폭행죄와 협박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다...대부분의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라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피해자 보호가 취약해지거나 무력해지는 제도적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미국의 경우...강제기소 등의 정책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 4) 미국의 「주정부를 위한 스토킹 모범법」은 피해자가 호소하는 공포와 위협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합리적 인간'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의 일련의 행동이 유사한 상황의 어느 누구에게라도 공포와 두려움을 초래하는가'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공포를 인정...한국사회는 범죄적 제재대상이 되는 폭력의 범주를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예측되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간과하고, 실제 피해자 보호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 5) 향후과제로...첫째, 데이트 폭력 가해자 기소여부를 피해자에게 결정하게 하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이...어떤 효과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직접적 신체적 상해에 대한 물리적 증거로 위협을 판단해 왔던 기존의 폭력 개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원문 읽기> <https://goo.gl/hva7uD>

## 시사점

1) 성차별로부터 기인하는 데이트 폭력의 개념,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대응 실태 등을 검토한 가운데,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과 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한 제언 참조.

##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 ■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외교부, 2017.10.31.)

#### <요약>

1) 최근 한중 양국은...외교당국간의 소통을 진행하였다...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하였다.

2)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중국측은...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양측은...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양측은...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원문 읽기> <https://goo.gl/VJLWrV>

#### ■ 시사점

1) 선거 캠페인 과정과 정부 출범 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모호성’을 유지한 댓가는 중국에게 희망적 사고를 부채질 했고, 결국 중국의 경제보복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나타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

2)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또한, 한·미·일 3국간의 안보 협력이 3국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외교부장관의 국정감사장 발언한 부분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부분과 관련해서 짚어야 할 것임.

### ■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 (대통령, 2017.11.1.)

#### <요약>

1)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입니다...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방안을 마련...공공기관...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2) 한반도는...안전해야 합니다. 평화로워야 합니다...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입니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 2천개...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국방 예산은...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 6천원에서 40만 6천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일 것입니다.

4)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원문 읽기> <https://goo.gl/Brb3kS>

### **시사점**

- 1) ‘사람중심 경제’를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로 설명하고 있지만, 대선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주장했던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음.
- 2) 예산안 중 안보를 제외한 공공부문 일자리 1만2천개 등의 예산은 엄격한 검증이 필요함.
- 3) 대통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언급했지만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해 언급이 없고,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로 공을 넘겨 소극적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 (교육부, 2017.11.1.)**

### **<요약>**

- 1)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전형을 후기에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 수렴을 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동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에 변경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모집시기	현 행	개정안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고</li> <li>▶ 마이스터고</li> <li>▶ 특성화고</li> <li>▶ 예·체고</li> <li>▶ 자사고</li> <li>▶ 외교·국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고</li> <li>▶ 마이스터고</li> <li>▶ 특성화고</li> <li>▶ 예·체고</li> </ul>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고(자공고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고(자공고 포함)</li> <li>▶ 자사고</li> <li>▶ 외교·국제고</li> </ul>

<원문 읽기> <https://goo.gl/L72fBV>

### 시사점

- 1)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로 고교서열화 해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2) 영재고/과학고는 고등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외교/자사고/국제고 등은 선지원 후추첨하여, 고등학교까지 입시 선발을 사실상 없애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함. <끝>